

전 남

장성서도 '기적의 사과' 나온다

〈무농약 재배에 성공한 日 아오모리현의 사과〉

“작물이 자라는 데는 햇빛과 공기, 수분, 온도, 지력(地力), 종자 등 6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과수에 병이 많이 오는 이유는 사람으로 치면 몸은 비만인데 체력은 허약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달 장성에서 한국관 ‘기적의 사과’가 생산된다. 장성군 남면 평산리 전춘섭(71)씨는 3년 전 50여년간 재배하던 감나무를 뽑아내고 사과농사를 시작했다. 기존 관행 농법을 벗어나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줌도 뿌리지 않는 ‘자연재배농법’에 도전한 것이다.

“자연재배농법”은 비료나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땅을 가는 시기, 배수 등을 통해 땅심을 높이고 작물의 저항성이 저절로 높아지게 하는 등 자연순환력을 극대화시키는 농법이다. 특히 3년 전 ‘기적의 사과’라 불리는 무농약 사과재배에

전춘섭씨 일본 견학 등 3년 연구 끝 재배 성공

무농약·무비료 자연농법... 내달말께 첫 수확

최초로 성공한 일본 아오모리현 기무라 아키노리(60·木村秋則)씨의 사과밭을 4차례 견학한 이후 자연농법에 대한 확신을 굳혔다.

기무라 씨는 아내가 농약을 뿌린 후에 일주일씩 앓아눕는 것을 보고 무농약·무비료 사과생산에 도전했으나 실패를 거듭하다 고집스럽게 11년 만에 성공했다. 더욱이 한 레스토랑 주방장이 우연히 기무라 사과 반쪽을 냉장고 위에 2년간 방치했어도 갈변도 없이 썩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달콤한 향까지 내뿜는 것을 발견하며 ‘기적의 사과’로 불리게 됐다.

전씨는 “비료를 주게 되면 작물

의 뿌리가 깊이 안들어가 땅이 단단해지고 작물에 불필요한 물이 안 빠지고 땅에서 올라오는 온도를 차단하게 된다”며 “산에서 자라는 나무는 비료나 농약을 주지 않아도 햇빛과 바람을 받고 병충해를 이기며 스스로 잘 자란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말~11월 초 첫 수확을 앞두고 있는 사과는 지역 기후에 적합한 ‘후지’ 품종으로 일반 사과보다 크기는 작지만 조직이 단단하고 쉽게 썩지 않는 특징이 있다. 전씨의 사과밭은 8천264㎡(2천500여평) 규모로 크지 않지만 3년간 쌓여온 땅방울이 이룬 ‘작은 성과’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다.

농사 첫해에는 어린 묘목 주위에 콩, 호밀, 헤어리베치 등을 심었고 2년차에는 알파파 등 ‘잡초’를 심어 지력을 높였다. 이렇게 과수 주위에 ‘잡초’를 심는 까닭에 대해 전씨는 “잡초들이 자생하도록 해 사과잎을 갹아먹는 벌레들을 잡초로 유인하고 천적이 생기게끔 한다”고 말했다.

3년전 1m남짓한 사과묘목을 심었던 것이 현재 3m 크기로 자라 그루당 10~50여 개의 사과가 달려있다. 올해 수확량은 4천여 개를 예상하고 있으며 ‘장성 한마음공동체’에 전량 납품할 계획이다.

전춘섭씨는 “사과농가들은 자기 경험에 의한 고정관념 때문에 기존 농법을 버리지 못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농업인들이 ‘자연농법’에 관심을 보인다”며 “앞으로 주변 농가들에 ‘자연농법’을 적극 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과일 열리는 제철소

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내 녹지공간에 배, 석류 등 유실수가 익어가고 있어 직원들과 방문객들에게 가을의 정취를 선사하고 있다. 제철소는 지난 2007년부터 ‘내나무 가꾸기’ 운동을 통해 석류·매실·감·앵두 등 150여 그루의 유실수를 심었다. <광양 제철소 제공>

보리산업화·유통회사 설립·미곡종합처리장 통합

영광 3대 농업시책 추진 순항

영광군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보리산업화, 유통회사 설립, RPC(미곡종합처리장) 통합 등 농업 관련 3대 시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2012년 정부의 보리수매 중단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보리산업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군남농협에 보리 가공공장 건립, 군남면 백양리에 40억원 규

모의 보리식품 가공업체 유치, 알곡보리 사료를 이용한 ‘황금돼지’ 개발, 청보리 한우 사육 우수 증가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 유통회사 설립을 위해 지난 7월 농림수산식품부 출신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발기인 회의를 마치는 등 다음달 주주모집, 10월께 창립을 목표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군은 지난달 영광 지역 RPC 통합을 완료해 쌀 공급 과잉, 수입 개방 확

대, 소비자 욕구 변화 등 쌀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고품질 쌀 육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성과로 지난달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미국에 처음으로 수출하기도 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3대 농업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 농업이 1차 산업을 벗어나 2차, 3차 산업으로 발전토록 함으로써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여겠다”고 말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가을 전령 ‘억새’ 조경용 상품 개발

함평 농기센터

함평군이 대표적인 가을 식물인 억새를 조경용 상품으로 개발한다.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8일 “1천㎡에 이르는 농업기술센터 시범포에서 참억새를 비롯해 모나리프, 무늬억새, 파랑새, 리틀제브라 등 여러 가지 억새 품종을 재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억새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자생 억새와 외국 품종 등을 재배해 대한

민국 국화대전 등 각종 축제 현장에 조경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군은 농가 교육을 통해 억새가 틈새 작목으로서 소득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농가 분양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열리는 가을 축제의 조경용 등으로 억새의 수요도 많아져 억새를 농가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평=황윤화기자 hwang@



테마가 있는 ‘남도 가을 여행’

영산강 황포돛배 등 17개 상품 선정

전남도는 영산강 황포돛배, 울돌목 거북배 등 5개 테마 17개 여행상품을 ‘남도 가을 여행상품’으로 선정했다.

오는 11월 말까지 3개월간 운영되는 ‘남도 가을 여행상품’은 문화상품, 슬로시티, 생태체험상품, 섬 상품, 남도별미, 명량축제 등 5개 테마로 마련됐다.

여행상품으로는 영산강에서 운항했던 전통 한선을 복원한 ‘영산강 황포돛배’와 해남 우수영에서 진도 벽파진까지 운항하는 ‘울돌목 거북배 체험’,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의 ‘도립국악단 토요공연’ 등이 추천됐다.

또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상품인 ‘완도 청산도’와 ‘신안 중도 태평 염전’, ‘담양 창평 삼지천 마을의 돌담길, 장흥 유치의 ‘무궁해 표고버섯 채취체험’ 등도 선정됐다.

각종 나들이 코스로는 ‘순천만’과 ‘해남 우항리 공룡박물관’ 서해바다 섬 끝자락 신비의 섬 ‘가거도’ 여행이 뽑혔다.

명량대첩축제는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숙박 관광객 1만5천여 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해전재현은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등 지난해보다 프로그램과 볼거리가 더욱 풍성해졌다. /최권일기자 cki@



남도문학 현장 답사

지난 5·6일 전남문인협회(회장 조수영) 주최로 열린 ‘제 3회 전국 문인초청 전남기행’에 참가한 전국 시·도지회장 등 130여명의 문인들이 이청춘 연작 소설 ‘남도 시랑’ 배경과 생가 등을 찾는 등 남도문학의 현장을 답사하고 있다. /정흥=김용기기자 kykim@

추석 앞두고 393개 지방도 정비

전남도로관리사업소

전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귀성객과 관광객의 교통안전에 위해 지방도 393개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8일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최근 전남지역 지방도 51개 노선 1천560km에 대한 일제 조사결과 쾌적한 교통 환경과 안전을 위해 총 393개소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표지판 식별 불량, 도로변 풀베기, 도로 위 토사 제거, 도로변 가지치기, 지방도 불법 점용 등 144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조치토록 통

보했다.

또 배수로 퇴적도 준설, 장마로 인해 파손된 포장도 보수, 교량 상판의 토사 제거,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등 76개소는 도로안전관리사업소 자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오는 30일까지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45개 노선 151km의 퇴색된 도로 차선과 14개 노선 3천196개소의 퇴색된 방호벽도 도색을 하고, 가드레일·낙석방지책·중앙 분리봉 등 안전과 직결된 시설물 92개소는 올해 재해 응급복구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계획을 수립해 추석 전까지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

장성 ‘황룡 행복마을’ 착공

한옥 체험관 등 시설 다양

도·농통합형 주거단지인 장성 ‘황룡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지난 7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 착수됐다.

전남개발공사 주관으로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현지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박준영 도지사, 이낙연 국회의원, 박인환 도의회 의장, 김주열 전남개발공사 사장과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황룡 행복마을은 전남개발공사가 일정 규모의 택지를 개발해 신규 주택 단지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황룡면 장산리 일원에 전통한옥 110가구를 비롯, 한옥 공공도서관, 한옥 체험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성=김용호기자 yongho@

2010년 신바람나는 공무원합격 준비는 지금부터 한빛에서 — www.hanbitgosi.co.kr

7·9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지방직 전문교육

소방지정면허의 소양교육

지방직 공무원 시험 대비

지방직 공무원 시험 대비

지방직 공무원 시험 대비

한빛소방직 전문교육원

교정직 특채 시험: 10월 18일, 모집 300명

신규: 행정·경찰·방사선

꼭집게 문제풀이 4주 완성 개강 9월 14일

종합반 하루 9시간 강의

한빛 최고의 합격시스템

개강 10월 5일

한빛고시학원

민박재택형 직장인들

월야간반

첫개강 > 10월 5일

강의시간 19:00 ~ 22:30

기초부터 심화이론

체계적인 학습단계

합격 논스톱강좌

한빛고시학원